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이주영(북한경제연구실), 김선중(미시제도연구실)

1. 최근 북한의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의 경우 1자녀 출산이 2자녀 이상 출산보다 많은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본고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 의사결정의 왜곡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합계출산율이 1.38을 보인 것은 기존에 UN이 추계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추세를 확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이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평양 등 도시지역의 개인주의 대두, 주택문제 심화 등에 기인한 만혼화, 여성의 시장활동의 증가로 인한 출산력의 저하, 1970~1980년대 노동력 공급증대 정책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3. 북한 합계출산율의 큰 폭의 하락 추세는 남북한 인구통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1~30년에는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15~64세 연령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북한 합계출산율의 큰 폭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만약 2030년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 개선효과가 미약하여 대규모 인구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표본이 북중접경지역에 다소 치우쳐 있고 고령층 표본이 청장년층 표본에 비해 적게 추출된 한계가 있다. 향후 표본이 모집단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륙지역 주민 및 고령층 주민의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문의처: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02-759-5647)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の内容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